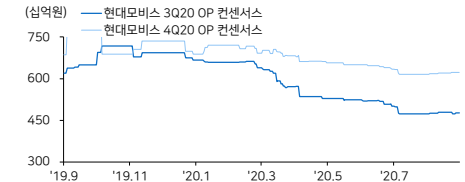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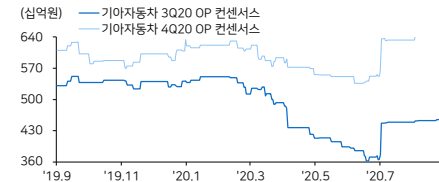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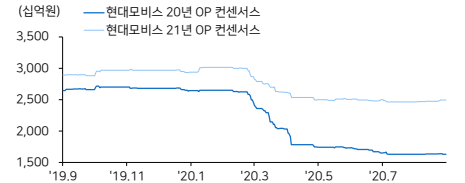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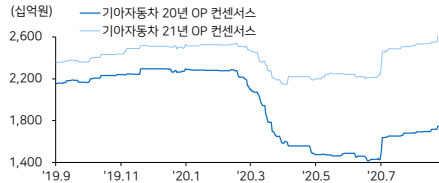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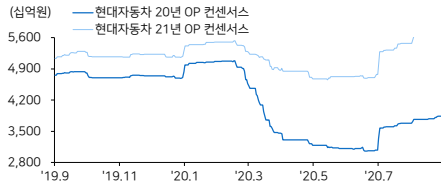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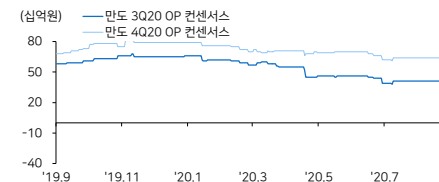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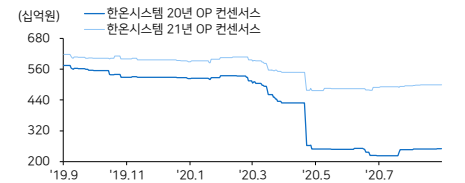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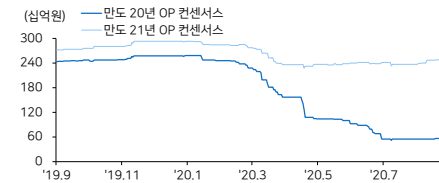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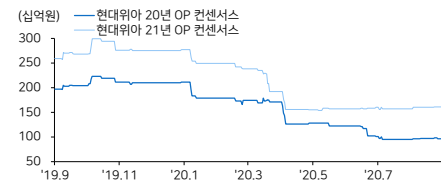


커버리지 컨센서스 추이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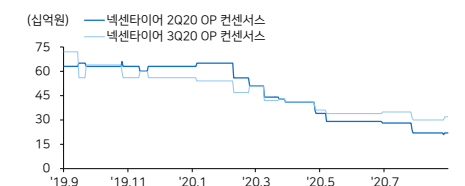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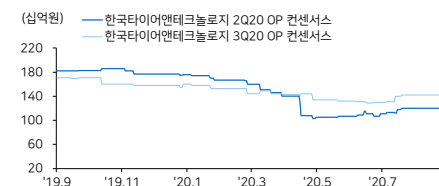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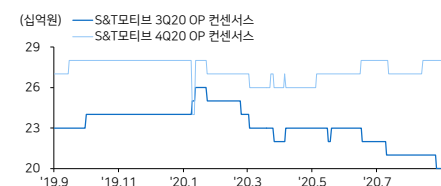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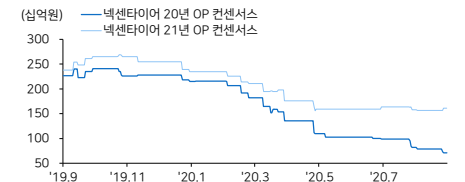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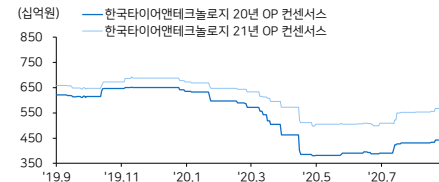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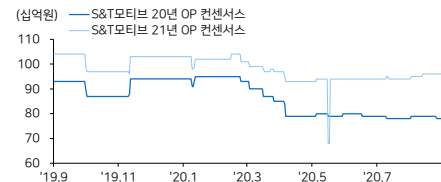
현대차 / 기아차 /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 만도 / 한온시스템



S&T모티브 / 한국타이어 / 넥센타이어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국내외 주요 뉴스

현대차 노사 임금협상 잠정 합의...11년 만에 임금 동결 (MBC뉴스)

현대자동차 노사가 올해 임금협상에 잠정 합의. 노사는 울산공장 등 3곳에서 화상 회의로 열린 13차 교섭에서 기본급 동결 등의 내용을 담은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https://bit.ly/3kzj8Ta>

연료펌프 흡입에 시동 꺼짐 위험' 현대차 등 9개 사 리콜 (노컷뉴스)

내부 부품 흡입·불량 등으로 시동 꺼짐 가능성이 확인된 현대차 등 9개 사 23개 차종에 대해 리콜이 진행. 국토교통부는 22일 현대차의 9개사의 23개 차종 2만 7414대에서 제작 결함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https://bit.ly/3h0XNn6>

Elon Musk confirms 'high volume' battery cell production won't start until '22 (Electrek)

Elon Musk confirmed today that Tesla's "high volume" battery cell production won't start until 2022 and therefore, it will mostly affect the Cybertruck, Tesla Semi, and Roadster programs.
<https://bit.ly/2FYFTA0>

중국인 차 2억대 고장난대 났다, 알리바바·텐센트 정비업 진출 (중앙일보)

알리바바와 중국판 카카오톡인 위챗의 모 기업 텐센트가 앞다퉈 차량 정비업에 뛰어들고 있음.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최근 중국 자동차가 노후화하면서 대기업들이 자동차 수리업 진출 경쟁을 벌이고 있다고 보도.
<https://bit.ly/2FWTDfY>

기아차, 딜러가 차 빌려주는 '기아모빌리티' 도입 (한국경제)

기아차는 이탈리아와 러시아에서 딜러 주도형 모빌리티 서비스 '기아모빌리티' 시범 사업을 시작. 딜러가 보유한 차량을 1일에서 1년 사이 기간동안 고객들에게 대여해주는 렌탈 서비스.
<https://bit.ly/3ZVnluF>

넥센타이어, 美 전기차 '카누'에 신차용 타이어 공급 (국민일보)

넥센타이어가 미국 전기차 스타트업 '카누'의 차량에 신차용 타이어(OE)를 공급. 2022년 출시될 카누는 넥센타이어의 올 시즌 프리미엄 SUV 타이어 '로디안 GTX'를 전기차용으로 개발한 '로디안 GTX EV'가 장착될 예정.
<https://bit.ly/2FV8tTN>

'유럽 기준 -100km'...한국 오연 쉼터는 '전기차 주행거리'의 비밀 (한겨레)

올해 전기차 시장이 본격적으로 달아오르면서 1회 충전 주행가능거리를 둘러싼 홍보 경쟁은 전쟁을 방불케 함. 국가별로 주행거리 차이가 왜 생길까? 전기차 주행거리에 대한 궁금증을 정리해봤음.
<https://bit.ly/2R0Mtwl>

로봇 배달 '성큼'...배민 '자율주행 배달로봇 연내 상용화' (한국경제TV)

우아한형제들은 차세대 배달로봇 '딜리드라이브(개발명 딜리Z)'를 21일 공개. 딜리Z는 실내외 통합 자율주행 기술이 탑재되는 등 이전 버전보다 성능과 기능이 크게 향상.
<https://bit.ly/3KCPoox>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